

사물의 이미지로 응고되는 미우미우의 에로틱한 책읽기

레몽 장의 <책 읽어주는 여자>와 미셸 드빌의 <책 읽어주는 여자>

김경욱 | 소설가

상상력의 신전을 지키는 그리핀의 의미는 무엇일까? 상상력보다 너무 빨리 오거나 늦게 오는 감각을 뜻하는 것은 아닐까?

영화 속에서 수시로 클로즈업되는 미우미우의 얼굴과 목소리가 우리를 모파상과 톨스토이와 사드의 에로티시즘으로 몰아넣는 까닭은 이 때문이다.

몇해 전 어느날 나는 종로에 있는 어느 극장에 앉아 있었을 것이다. 그 때 나는 20대 중반이었을 테고 그다지 놀라거나 신기한 일도 아니지만, 옆자리에는 어떤 여자가 앉아 있었을 것이다. 바야흐로 청춘시대였고 데이트 중이었던 것이다. 그 때 스크린에는 미우미우의, 나이를 짐작하기 어려운 얼굴이 수시로 클로즈업되고 있었고, 책을 읽는 그녀의 목소리가 랩 소리처럼 이어졌다 끊겼다 하고 있었다. <책 읽어주는 여자>라는 영화는 내게 늘 그런 식으로 기억된다. 팝콘냄새와 목구멍을 적시는 스프라이트의 차가운 따끔함, 그리고 약간의 어색함과 불편함.

책이 불러일으키는 열린 상상력

사실, 영화를 보기 전에 나는 이미 레몽 장의 소설 <책 읽어주는 여자>를 읽었다. 그러나 나는 영화의 줄거리 진행에 대해 아는 체를 할 수 없었다. 이상하게도 영화가 시작되면서 읽었던 책의 내용을 거짓말처럼 완전히 잊어버렸기 때문이다. 긴장했냐고 물어본다면 대답은 'No' 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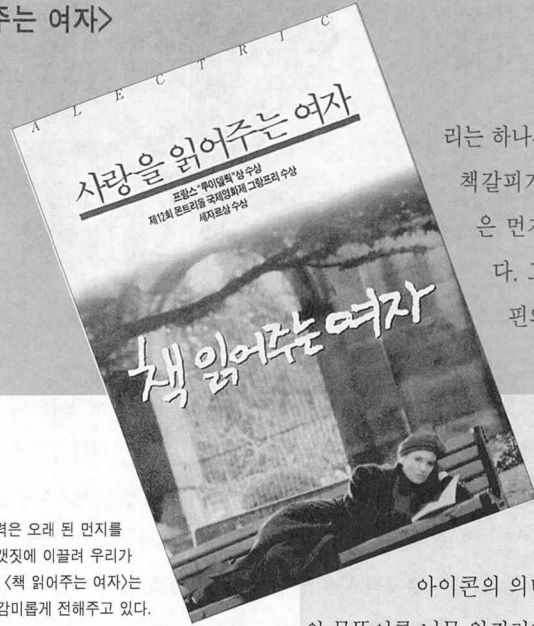
스크린에 빛이 반사되면서 과거에 읽었던 레몽 장의 책은 단지 책에 불과했고 미우미우가 들

책갈피를 펼치는 순간 상상력은 오래 된 먼지를 털고 날개를 편다. 그 날갯짓에 이끌려 우리가 다다른 세계는 어딜까. <책 읽어주는 여자>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감미롭게 전해주고 있다.

고 있던 다른 책들, 이를테면 모파상의 단편집이나 톨스토이의 <전쟁과 평화>, 사드의 <소돔에서의 120일>과 같은 하나의 사물로 존재하게 된 것이다. 그렇다, 적어도 그 영화를 보는 순간, 아니 영화라는, 빛의 투영과 반사의 흐름 속에서 책은 사물의 이미지로 응고되고 있었다. 마치 누런 종이봉투에 담겨진 바케트 빵처럼.

그러나 책은 바케트 빵이면서 동시에 바케트 빵이 아니다. 바케트 빵과 책은 일종의 패티시적 사물이기에 충분했다. 다만 바케트의 성적 상상력이 클리셰(cliche), 즉 닫힌 상상력이라면 책은 열린 상상력이라고 할 수 있다. 침대 위나 테이블 위에, 혹은 낙엽이 진 공원의 벤치 위에 아무렇게나 펼쳐진 책의 이미지는 또 얼마나 성적인가? 영화 속에서 수시로 클로즈업되는 책 읽는 미우미우의 얼굴과 목소리는 저 모파상과 톨스토이와 사드의 에로티시즘으로 미끄러진다.

책의 상상력이 열려 있는 건 그것이 상호적이기 때문이다. 특히 책 읽어주는 여자 곁에 책을 듣는 남자(여자)가 있을 때, 이제 책 읽어주는 여자는 책 자체와 전혀 구별할 수 없게 된다. 책 읽어주는 여자의 경쾌한 발음과 감미로운 목소



리는 하나의 유혹이 된다. 상상의 책갈피가 펼쳐지고 욕망은 문은 먼지를 털어내기 시작한다. 그리고 이어지는 그리핀의 날갯짓.

상상력의 신전을 지키는 그리핀. 독수리의 머리와 날개 그리고 사자의 몸통

이를 가진 이 신화적

아이콘의 의미는 무엇인가. 상상력의 몸뚱이를 너무 앞질러가는 감각의 성급함, 혹은 직접성이라고 말할 수는 없을까. 그렇다. 감각은 언제나 상상력보다 너무 빨리 오거나 너무 늦게 온다. 번덕스러운 연인처럼, 예측불가능한 사랑처럼. 감각에 의해 추월당하는 순간, 상상력은 다시 사물로 닫히게 된다. 현실은 감각의 속도위반을 참아줄 만큼 관대하지 않기 때문이다.

너무 빠르거나 느린 감각의 속도위반

언제든 펼 수 있듯이 언제든 덮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책이다. 번덕스러운 연인처럼 너무 빨리 오거나 너무 늦게 오는 감각의 속도를 견디지 못하는 상상력은 책 읽어주는 여자조차도 사물로 응고시킨다. 책 읽어주는 여자의 현존은 그 빛을 잃고 현실의 일목요연한 구도 속으로 내던져진다. 그러나 언제든 책을 덮을 수 있듯이 마찬가지로 언제든 다시 책을 펼칠 수 있다. 닫혀 있으면 열려 있는 인간의 욕망처럼.

종로의 그 극장은 아마 코아아트홀이었을 것이다. 그리고 나는 올해가 저물면 더 이상 20대 일 수가 없다. 그런데 대체 미우미우의 나이는 몇이나 됐던 것일까. ●